

노안 독자를 위한 큰글자도서 이용가능성 연구*

Availability of Accessible Large-Print Books for the Readers with Presbyopia in Korea

장혜란 (Hye Rhan Chang)**

초 록

노령화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독서 장애요인과 노안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의 독서를 용이하게 만드는 한글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수집 및 이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유통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지리스트와 교보문고의 재고 리스트를 기초로 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접근가능한 큰글자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보급한 큰글자도서 리스트와 기존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이용가능한 큰글자도서의 유형, 종수와 권수, 출판연도, 주제, 중복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식별하고 큰글자도서의 서지통정, 수집 확대, 도서관의 노인 독서 진흥 방안 및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ABSTRACT

Services for the elderly is a new challenge for the libraries in aging society. This study reviewed the obstacles faced by the old readers and presbyopia, and analyzed the states of the large-print books to understand and estimate the Korean large-print books availability. Based on the bibliographic list of large-print books collec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large-print book stock list of the Kyobo Book Center, large-print book lists supplied to the libraries by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and the data of the previous Library Survey for the Disabled, number of titles and volumes, publication year, duplication, and subject field of the large-print books available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problems are identified and recommendations for bibliographic control, collection development, reading promotion, and further research area are suggested.

키워드: 노안, 큰글자도서, 출판, 이용가능성, 도서관
presbyopia, large-print books, publication, availability, libraries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rhan@smu.ac.kr)

■ 논문접수일자: 2015년 8월 24일 ■ 최초심사일자: 2015년 8월 31일 ■ 게재확정일자: 2015년 9월 10일
■ 정보관리학회지, 32(3), 341-360,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341]

1. 서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선진국형 인구구조의 특성은 의학 및 과학 기술의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소득의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특히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통계청(2014)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평균 수명은 남성이 78.5세 여성이 85.1세이며,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38만 명으로 국민 전체의 12.7%에 달한다.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문제는 50~64세 인구를 일컫는 준고령자를 고려할 때, 보다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준고령자는 10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다.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모두 합하면, 2014년에는 전 인구의 33.5%에 달하고, 2024년에는 43.4%로, 2034년에는 50.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부각되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며,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의 성공적인 삶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노인의 생활 만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측정 방법이 있으나, 대체로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참여, 재정, 취미/여가 생활, 가족친지간 인간

관계 등을 중요한 지표로 들고 있다(Gabriel & Bowling, 2004; Borg, Hallberg, & Bloomquist, 2006). 그러나 우리사회는 노년층을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적인 관심은 대부분 노인의 빈곤이나 건강에 치중되어 왔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신체 기능뿐 아니라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이 양호한 상태를 모두 유지해야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 노년층에게는 또한 사회적 연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적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중요하다.

최근 노년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수명연장에 따른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가 증가되고 독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독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늙어가는 노인들에게 특히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 읽기는, 기호를 해독하는 복잡한 인지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단어와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행동으로, 시각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인들의 주된 독서장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게 되는 노안(老眼)인데, 노안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표준적인 인쇄자료를 읽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안 독자의 시력 약화를 배려한 대표적인 자료 유형이 큰글자도서(large-print books)이다. 큰글자도서는 표준 인쇄본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트랜스크립션(transcription)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인쇄본의 한 버전이다. 외국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오래 전

부터 큰활자로 인쇄된 도서가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노인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보급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별도의 서지 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노인의 독서장애와 큰글자도서의 출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말로 된 큰글자도서가 얼마나 출판되었고 수집되었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용가능한가를 추정해 보기 위한 것이다. 외국의 공공도서관 고령자서비스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자의 요구와 관심을 장서와 서비스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글자도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8;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2009). 도서관은 국민을 위한 최적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임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더 이상 노인 이전의 성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큰글자도서의 이용가능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식별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획과 노인 독서 진흥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의 독서장애와 큰글자도서

2.1 노인의 여가와 독서

여가는 일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경제활동,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의무적인 활동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년 기간이 길어져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노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의 여가 이용행태는 중요한 논의 대상인데, 대부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일관되게 TV 시청에 집중되어 있다.

독서가 오락, 지식,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독자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를 느끼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미국 Emory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의하면, 독서가 언어·인지 능력과 관련된 뇌부위의 활성화는 물론 신체운동과 관련된 뇌부위도 활성화 함으로써 운동효과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경제, 2014). 신체와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독서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노인들도 그다지 독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독서인구의 비율은 10대가 96.8%로 정점에 있고, 50대에 가면 62.9%로 낮아지고, 60대에는 48.4%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전 인구의 1인당 연평균 독서량은 27.8권임에 비하여 성인은 10.2권이며, 성인 중 60대 이상은 5.2권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년층이 비교적 인쇄본친화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서가 여가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60세-80세 노인을 대상으로(N=506) 여가활동이 아닌 취미를 묻는 질문

에는 1위가 독서(30.6%), 2위가 운동, 3위가 등산, 4위가 음악으로 나타나 있다(김유선, 1998). 김혜영(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 여가생활 중 독서의 비율이 7.23%로 낮지만 조사대상의 75.66%가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박정아(2012)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중 독서활동과 도서관 이용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전용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책을 보려는 것'이 도서관 이용 목적의 68%로 높게 나타났다(김중은, 2013).

흥미로운 것은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독서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국의 연구에서는, 일반인(N=5000) 대상 조사에서 60세 이상 집단이 40-60세 집단보다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Riley & Foner, 1968). 보다 최근에 노인생활 관련 조사에서도 독서의 여가활동 순위와 하루 평균 독서시간이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Federal Interagency Forum, 2008). 55-64세는 독서가 0.5시간(여가시간의 9.3%)으로 4위, 65-74세에는 0.8시간(여가시간의 11.0%)로 3위, 75세 이상은 1시간(여가시간의 13.7%)로 TV시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교육수준이 높은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게 되고 의료복지와 연금정책으로 노후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여가시간 활용에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2 노인의 독서장애와 노안

노인의 독서와 더불어 책을 읽지 못하는 이

유 즉, 독서장애 요인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이 있는데,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하는 눈의 노화가 노인의 독서수행에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유선(1998)의 연구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서 '글씨가 작아서'가 20.7%로 첫째 요인이고, '눈이 잘 안보여서'가 3.9%로, 모두 24.6%가 시각적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박선주(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독자층의 도서관 매 방해요인을 조사하였는데, '독서에 대한 무관심'에 69.4%, '노안'에 54.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김홍래(2009)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노인(N=155) 대상으로 책을 잘 읽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 60%에 해당하는 93명이 '활자가 작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노인교실에 다니는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N=305)을 대상으로 독서장애 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눈이 안보이거나/ 몸이 불편하다'가 45.3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김혜영, 2010). 공공도서관 비이용 시각장애인(N=384)을 대상으로 비이용요인에 대한 인식도를 5점척도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큰활자본의 부족'이 3.31로 나타나(평균은 3.18), 시각장애인들도 대체로 큰글자도서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오선경, 이지연, 2011).

눈은 인체에서 가장 빨리 늙고 외부자극에 취약한 장기이다. 40대 중반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리적 노화현상의 일환으로 시력의 사용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 노안이 되면, 근점이 멀어지고, 근거리 시력이 흐려지며, 동공이 수축되고, 독서할 때 졸린 증상이 나타난다(Borish, 1970). 우리 눈에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노안은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굴절이상의 일종이다. 아이들은 보통 12 디옵터 정도의 조절력이 있으나 40세 정도가 되면 6디옵터로 떨어지고 60세 이후에는 1디옵터 이하로 조절력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Weizer & Stein, 2011).

노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려는 의학적 노력은 부단히 이루어져 왔다. 가장 간편한 노안극복은 자신의 조절력에 맞는 근거리전용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동시에 보는 작업이 어렵고 (이중초점이나 누진다초점 안경이 사용되고 있긴하지만), 노화진행에 따라 시력이 나빠지므로 수년에 한 번씩 안경을 바꾸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노안교정용 특수렌즈를 삽입하거나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적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45세~60세까지 적합하며, 60세 이후는 회복력이 더디고, 과거에 안질환 수술경험이나 당뇨 또는 출혈성 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이 없어야 하므로, 장애 요인이 많다(월간당뇨, 2008).

노안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4년도 노인 안건진 및 개안수술 사업” 실적을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정상 노인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윤경아, 2006). 최근 컴퓨터,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에 과다노출되어 눈을 혹사하게 되므로 노안이 일찍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동아대학교병원 등 3개 병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30-40세의 노안비율은 2006년 3%에서 2011년 7%로 늘었다(조세일보, 2015). 노안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겪게 되는 증상으

로, 2020년이면 한국의 노인인구가 42%에 달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프런티어 타임즈, 2012).

2.3 노안독자를 위한 큰글자도서의 출판

노안 독자들은 효율적 독서를 위해 대체자료의 일종인 큰글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대체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노인 이용자들은 음성도서보다는 큰글자도서를 더 선호하였다(정종기, 2001). 전자자료는, 인간이 낭독하는 것보다 역양과 변조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김홍래(2009)의 연구에서는 대활자본 제작시 읽을 의향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들의 8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일반 도서가 10-11포인트의 활자로 인쇄되는 반면에 큰글자도서는 16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인쇄된다. 노안 연령층에 적합한 한글서체와 형태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김홍래(2009)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노인 중 54%가 16포인트 이상 활자체를, 78%가 국배판(A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근해(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활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체는 맑은 고딕체, 행간은 130%, 판형은 B5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혜, 손정식, 황해영, 김성근, 유동식(2013)의 연구에서는, 글자크기가 읽기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50대 이상의 67%에서 13포인트 이상의 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FLA에서는 16포인트 이상의 활자를 권장한다(Kavanash & Skold, 2005). 문제는, 일반 도서에 비해 구매 수요가 적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상업적 출판사가 큰글자도서 생

산에 쉽게 나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1960년대에 독서약자를 배려한 큰글자도서의 상업적 출판이 독립된 출판 분야로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극소수의 종교분야 정기간행물, New York Times Large Type Weekly, Reader's Digest 등의 정기간행물이 있었다. 1964년에 영국의 F.A. Thorpe사가 Ulverscroft 시리즈로 4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사서들과 독자들로부터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1965년에 큰글자도서가 출판되었으며, 영국에서 출판된 도서가 미국의 도서관에서도 이용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MacMillan의 자회사인 G. K. Hall이 1971년에, John Curley & Associates Inc.가 1976년에, Thorndike Press가 1978년에 큰글자도서 출판에 진입하였다. 북클럽으로는 Doubleday Large Print Home Library가 생겼으며, 종교서적 출판사들이 큰글자도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Palmer, 1988). 초창기 큰글자도서들은 고전이나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의 리프린트가 대부분이었으며, 큰글자도서의 출시는 일반도서보다 수개월 내지 1년의 시차가 있었다. 1987년에는 Doubleday사가 선별적으로 일반도서와 큰글자도서의 동시 출판을 시행하여 출판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을 통해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큰글자도서의 구매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큰글자도서 출판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초에 실버북 분야가 잠깐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부 출판사들이 글자를 키우고 행간을 넓히는 몇가지 시도가 있었다. 2001년에는 평민사 '실버문고' 시리즈, 웅진닷컴, 나

무생각 등에서 출판이 되었고, 2002년에는 세종서적과 민음사에서 출판되었으나 대체로 판매가 부진하였다(박선주, 2004).

본격적으로 큰글자도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말에 이르러서이다. 2008년에 도서출판 '점자'에서 큰글자도서 14종을 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세계한국문학전집 50권이 큰글자로 발행하였다(큰글편집위원회, 2010). 2009년에는 민음사가 '책 같이 좀 봅시다' 캠페인을 시작하여 자사 도서 중 11종을 큰글자로 만들었다. 2012년에 살림출판사는 대표브랜드인 살림지식총서 중 선호도가 높은 도서를 엄선하여 문고판 최초로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50종을 15포인트로 제작하였다. 2014년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는 기존 출판물의 활자를 17포인트로 하고, A4크기의 판형으로 확대하여, 4개 브랜드를 통해 큰글자도서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였는데, '커뮤니케이션북스' 1,100종, '지식공작소' 41종, '지식을 만드는 지식' 400종, '학이시습' 14종 등을 출판하였다.

3. 큰글자도서 이용가능성 분석

큰글자도서가 부족하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가능한지를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다. 해마다 출판연감이 발행되고 있으나 특수유형인 큰글자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존에 출판된 큰글자도서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국가서지를 관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데이터를 기초로 하였으며, 유통되고 있는 큰글자도서에 대한 분석은 국내 최대 도서 유통업체인 교보문고의 보유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고, 공공도서관에서 접근가능한 큰글자도서에 대한 분석은 한국도서관협회 대활자본보급사업 도서리스트와 최근의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다. 여기서 이용가능성 분석은, 이용자가 찾는 문헌의 도서관 소장 또는 획득가능 확률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구명코자 하는 것은, 한국어 큰글자도서가 사회 안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이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3.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큰글자도서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를 관장하는 납본도서관이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 13조 7항에 의하면, 납본대상 자료의 범위에는 큰글자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큰글자도서의 서지리스트를 제공받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2014년 10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큰글자도서는

총 2,744종 5,738책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큰글자도서의 유형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큰글자도서의 유형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유형별 분석을 보면, 일반도서가 2,587종(94.3%)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류를 비롯한 참고도서가 72종, 초중등교과서 48종, 아동용 도서가 37종으로 나타나 있다.

3.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큰글자도서의 사용언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큰글자도서의 사용언어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사용언어별 분포를 보면, 국어가 2,597종(94.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영어 105종, 일본어 27종, 중국어 3종, 기타언어 1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3.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큰글자도서의 발행 연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큰글자도서의 발행 연도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1> 국중 소장 큰글자도서의 유형별 분포

도서 유형	종 수	백분율(%)
참고도서	72	2.6
일반도서	2,587	94.3
교과서	48	1.7
아동용도서	37	1.3
합 계	2,744	100.0

〈표 2〉 국중 소장 큰글자도서의 사용언어별 분포

사용 언어	종 수	백분율(%)
한국어	2,597	94.6
영어	105	3.8
일본어	27	1.0
중국어	3	0.1
기타언어	12	0.4
합 계	2,744	100.0

〈표 3〉 국중 소장 큰글자도서의 발행연도별 분포

발행연도	종 수	백분율(%)	누적백분율(%)
[n.d.]	1	0.04	0.04
1924	1	0.04	0.08
1962	2	0.07	0.15
1975	1	0.04	0.19
1978	2	0.07	0.26
1981	2	0.07	0.33
1983	2	0.07	0.40
1985	2	0.07	0.47
1986	1	0.04	0.51
1989	1	0.04	0.55
1991	2	0.07	0.62
1992	2	0.07	0.69
1993	3	0.11	0.80
1994	3	0.11	0.91
1995	13	0.47	0.38
1996	7	0.26	1.64
1997	17	0.62	2.26
1998	9	0.33	2.59
1999	5	0.18	2.77
2000	3	0.11	2.88
2001	8	0.29	3.17
2002	5	0.18	3.35
2003	10	0.36	3.71
2004	10	0.36	4.07
2005	7	0.26	4.33
2006	14	0.51	4.84
2007	11	0.40	5.24
2008	16	0.58	5.82
2009	20	0.73	6.55
2010	85	3.10	9.65
2011	49	1.79	11.44
2012	68	2.48	13.92
2013	12	0.44	14.36
2014	2,350	85.64	100.00
합 계	2,744	100.00	100.00

발행연도별 분석을 보면, 1924년도 출판물이 1건 있고, 이후 1962년 출판물부터 소장되어 있으나, 소장 종수는 2009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적어서 누적 백분율은 전체의 6.55%에 불과하다. 2013년에 크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2,744종의 85.64%에 이르는 2,350종이 2014년에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몇 출판사에서 큰글자도서를 확대 생산한 경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립장애인도서관 출범 이후 납본 등을 통한 대체자료의 수집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 자료 출판의 수량은 정확한 통계의 결여로 인해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인쇄본장애를 가진(print disability)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는, 선진국의 경우는 출판되는 전체 도서의 5%,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lvo, 2014). 물론 이 수치에는 큰글자도서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전자자료와 특수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출판 대

국에 속하며,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납본을 통해 집계된 지난 10년간(2004-2013) 신간도서 발행 종 수는 매해 40,000종을 넘는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4). 그동안 큰글자도서 출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큰글자도서의 열악한 이용 가능 수준을 알 수 있다.

3.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큰글자도서의 주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큰글자도서의 주제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주제별 분포를 보면, 전체의 43.8%인 1,202종이 문학분야에 속해 있으며, 그 다음은 712종으로 25.9%를 차지하는 사회과학 분야로 나타나 있다. 총류 6.6% 언어 5.9%, 예술 5.8%의 순서로 되어 있다. 큰글자도서의 출판이 일부 주제에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부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총 1,202종의 문학분야 큰글자도서를 국가별로 보면 52.0%에 해당하는 624종이 한국문학

<표 4> 국중 소장 큰글자도서의 주제별 분포

주제 구분	KDC 주류 번호	종 수	백분율(%)
총류	000	181	6.6
철학	100	109	4.0
종교	200	47	1.7
사회과학	300	712	25.9
자연과학	400	23	0.8
기술과학	500	72	2.6
예술	600	158	5.8
언어	700	163	5.9
문학	800	1,202	43.8
역사	900	777	2.8
합 계		2,744	100.0

〈표 5〉 국중 소장 문학분야 큰글자도서 상세분석

주제 구분	KDC 강목 번호	종 수	백분율(%)
문학일반	800	42	3.5
한국문학	810	624	52.0
중국문학	820	136	11.3
일본문학	830	33	2.7
영미문학	840	70	5.8
독일문학	850	78	6.5
프랑스문학	860	84	7.0
스페인문학	870	25	2.1
이탈리아문학	880	5	0.4
기타 제문학	105	105	8.7
합 계		1,202	100.0

〈표 6〉 국중 소장 사회과학 분야 큰글자도서 상세분석

주제 구분	KDC 강목 번호	종 수	백분율(%)
사회과학 일반	300	8	1.1
통계학	310	1	0.0
경제학	320	348	49.0
사회학·사회문제	330	211	30.0
정치학	340	34	4.8
행정학	350	10	1.4
법학	360	21	3.0
교육학	370	46	6.5
풍속·민속학	380	22	3.1
국방·군사학	390	11	1.6
합 계		712	100.0

이며, 그 다음이 중국문학(11.3%), 프랑스문학(7.0%), 독일문학(6.5%), 영미문학(5.8%)의 순서로 되어 있다.

사회과학 부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총 712종의 사회과학 큰글자도서의 상세내용을 보면, 경제학이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48종(49%)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사회학·사회문제에 관한 도서가 211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학문을 합하면 사

회과학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

3.2 교보문고 보유 큰글자도서 분석

유통되고 있는 큰글자도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합한 상업서지가 없으므로 교보문고의 보유도서리스트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교보문고는, 우리나라의 대형서점 중에서 지난 수년간 온오프라인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도서유통사업체로서(대한출판문화협회, 2014,

p. 144), 지난 15년 이상 고객만족도(KCSI) 연속 1위, 10년 동안 브랜드파워(K-BPI)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교보문고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큰글자도서를 망라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간주하여, 협조를 구하여 2014년 10월 현재 보유 중인 큰글자도서 894종의 서지 리스트를 입수하였다. 총 894종 중에는 정기간행물인 잡지 5권을 제외한 일반도서는 889종이며, 모두 국어로 된 도서이다. 일반도서 889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교보문고 보유 큰글자도서의 발행연도와 재고상태

교보문고 리스트에 있는 큰글자도서의 발행연도와 재고상태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서점의 특성상 도서별 재고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소급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교보문고에서는 1995년부터 큰글자도서를 판매하였으며,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종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4년에 갑자기 생산이 늘어난 소수 출판사들이 직접 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서점을 경유하기보다 직접 구매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889종 중에서 즉시 판매가능 도서와 주문판매가능 도서는 모두 471종(53%)이다. 절판된 도서가 166종(18.7%), 품절된 도서가 252종(28.3%)으로 나타났다. 발행연도 2000년 이후 도서의 절판 및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아, 큰글자도서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표 7> 교보 큰글자도서의 발행연도와 재고 상태

재고상태 발행연도	절판	정상	주문판매	품절	합계	백분율(%)	누적백분율(%)
1995	1				1	0.1	0.1
1996	3			4	7	0.8	0.9
2000			1	6	7	0.8	1.7
2001	4			2	6	0.7	2.4
2002	10		4	16	30	3.4	5.8
2003	7	1	1	11	20	2.2	8.0
2004	3	3		22	28	3.2	11.2
2005	12	4		35	51	5.7	16.9
2006		3		14	17	1.9	18.8
2007	8	4		21	33	3.7	22.5
2008	20	2		35	57	6.4	28.9
2009	36	36		22	94	10.6	39.5
2010	28	25		35	88	9.9	49.4
2011	18	75		18	111	12.5	61.9
2012	16	145		10	171	19.2	81.1
2013		114			114	12.8	93.9
2014		52	1	1	54	6.1	100.0
합 계	166	464	7	252	889	100.0	100.0

3.2.2 교보문고 보유 큰글자도서의 주제

교보문고는 보유도서에 대해 주제와 대상에 따른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큰글자도서 899종에 대한 주제별 분포와 재고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주제별 분포를 보면, 889종 중에서 종교 분야가 607종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주제별 편중 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607종의 재고상태는 절판 154종, 품질 236종, 정상판매 211종으로 유통 상태가 역동적임을 알 수 있

다. 정상판매 도서 총 464종 중에서도 종교 관련 서적이 211종으로 45.5%에 이른다. 종교 다음으로는 인문이 123종(13.8%), 소설과 시/에세이를 포함한 문학이 43종(4.8%), 역사/문화 39종(4.4%)의 순서로 되어 있다. 교보 주제분류 인문부문에는 심리학, 교육학, 철학, 언어학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종교 분야에 대해 상세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8> 교보 큰글자도서의 주제와 재고상태

주제 \ 상태	절판	정상	주문판매	품질	합계	백분율(%)
건강	1	21		1	23	2.6
경제/경영		4		1	5	0.6
과학		3			3	0.3
기술/공학	2	4		1	7	0.8
소설	1	7		1	9	1.0
시/에세이	4	28		2	34	3.8
어린이(초등)		1		1	2	0.2
여행		2		1	3	0.3
역사/문화	1	37		1	39	4.4
예술/대중문화		2			2	0.2
인문		122	1		123	13.8
자기계발	1	13		1	15	1.7
정치/사회		3		1	4	0.5
종교	154	211	6	236	607	68.3
취미/실용/스포츠				1	1	0.1
컴퓨터/IT	2	6		4	12	1.4
합 계	166	464	7	252	889	100.0

<표 9> 교보 보유 종교분야 큰글자도서 상세분석

종교	유형	종 수	백분율(%)
기독교	성경	535	88.1
	찬송가/성가집/악보	48	7.9
	기도서/설교집/학습서	15	2.5
기타종교	-	9	1.5
합 계		607	100.0

교보문고가 보유하고 있는 종교분야의 큰글자도서는 거의 모두(98.5%) 기독교 관련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 관련 큰글자도서는 대부분이 성경(88.1%)이고, 찬송가/성가집/악보(7.9%)와 기도서/설교집/학습서(2.5%)가 있다. 기타종교 관련 큰글자도서는 9종(1.5%)에 불과하다.

성경은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된 출판물이며, 특히 노인들이 종교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큰글자로 출판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출판사항 뿐 아니라 제본상태, 표지의 재질과 모양, 컬러 등 외적인 상태에 따라 각각 ISBN이 부여되므로, 관행상 각각 하나의 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교보문고 재고 리스트에 있는 큰글자도서 총 889종 중에서, 성경을 단일 품목으로 간주하여 종 수를 다시 산출해 본다면, 재고도서는 총 355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용가능한 큰글자 일반도서의 종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측정해 보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큰글자도서와 교보문고 재고 큰글자도서의 중복성을 조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큰글자도서 중 참고도서, 외국어도서, 교과서, 아동용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와 교보 재고리스트 중 종교분야와 어린이(초등)분야를 제외한 일반인 대상 자료 280종을 대상으로 서지사항을 대조하였다. 조사결과, 교보문고의 리스트에 있는 280종 중에서 115종(41.07%)이 국립중앙도서관 비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도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큰글자 일반도서의 종 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2,587종 <표 1>과 교보문고의 115종을 합하여 총 2,702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비소장 큰글자도서의 정상본은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교보리스트에 있는 2014년 큰글자도서가 매우 적은 수치인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 기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큰글자도서의 납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큰글자도서의 주제분석 결과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교보문고 모두 대단히 편중된 현상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학(43.8%)과 사회과학(25.9%)분야에, 교보문고는 종교(68.3%)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용가능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 특수유형의 도서가 목표이용자들의 요구에 적합한가에 관한 문제이다.

노인의 독서 흥미와 요구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서로 상충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일찍이 Harvey와 Dutton(1979)는 노인의 독서 흥미에 대한 몇가지 선행연구를 리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들은 과학소설, 우물하거나 선정적인 도서, 구성이 복잡하거나 등장인물이 많은 도서, 직업적 전문적 도서를 싫어하고, 가벼운 로맨스, 전기류, 미스터리, 여행도서, 성경 등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선주(2004)는 노년 독자의 관심 분야를 15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관심은 40.7%가 건강·장수, 16.9%가 재테크, 15.3%가 취업 및 자립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1.7%에 불과하였다. 큰글자도서 간행을 가정하여 독서 선호 주제를 조사한 김홍래(2009)의 연구에서는 건강(59%), 역사소설(17%), 고전소설(9%)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인

이 읽는 도서를 조사한 김혜영(2010)의 연구에서는 종교(28.73%), 문학(11.02), 교양(10.58)의 순서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정아(2012)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관심 분야가 여가취미(31%), 건강의료(28.2%) 문화예술(17.6%)의 순위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의 도서 선호 분야가 문학(24.6%), 철학/사상/종교(22.1%), 취미/오락/여행/건강(16.7%)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08)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요구로 건강의료, 연금, 재정, 주거, 평생교육, 복지 자원봉사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노인의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장혜란(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의료, 뉴스, 취미 활동, 종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Williamson과 Asla(2010)의 연구에서는 건강, 소득/재정, 여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시대적인 변화, 조사대상과 조사가 실시된 환경, 제시된 문항이나 내용의 차이 등에 기인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 집단의 다양성 자체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 공공도서관의 큰글자도서 소장 현황 분석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큰글자도서를 활용하여 독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대활자본을 활용한 노인 독서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기관이 되어, 저작권을 해결한 도서 중에서 노인들의 선호도, 내용적합성, 활자크기와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후,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독서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배포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된 큰글자도서의 종 수, 배포된 책 수, 공급 도서관 수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2009년 2014년까지 121종(128책)의 큰글자도서 39,300부를 899개처에 배포하였다. 121종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문학 37종(30.6%), 건강 22종(18.2%), 인문/교양 15종(12.4%), 역사 12종(9.9%)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종교 관련 도서는 6종(5.0%)이다. 이 사업에 신청하여 참여하게 된 공공도서관들은 공급받은 큰글자도서를

<표 10>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큰글자도서 보급 현황

시행연도	선정도서 종(책) 수	배포 부 수	공급 도서관 수
2009	20 (22)	7,200	80
2010	15 (16)	4,800	82
2011	21 (22)	6,600	150
2012	21 (21)	6,600	120
2013	22 (23)	6,900	222
2014	22 (24)	7,200	245
합 계	121 (128)	39,300	899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표 11〉 공공도서관 큰글자도서 장서 현황

공공도서관 수	응답기관 수	평균보유 종(권) 수
738	235	105.22 (125.41)

출처: 2013년 전국도서관장애인서비스현황조사, p. 12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게 되므로, 선정된 도서의 주제 분야는 문학 분야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공공도서관에 큰글자도서가 어느정도 수집되어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매년 『한국도서관연감』을 발행하여 각종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현황 부문은 도서와 비도서 정기간행물로 구분되어 있고,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3년에 수행한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국립중앙도서관, 2013)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큰글자도서 수집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와 서비스에 관한 것인데, 조사 항목에 큰글자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표 11〉과 같다.

738개 공공도서관 중 31.8%에 해당하는 235개 공공도서관이 응답하였으며, 평균보유종 수는 105종, 책수는 125권으로 나타났다. 응답 공공도서관 전체의 큰글자도서 보유 책 수는 약 29,375권으로 산출될 수 있다. 위 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도서관 큰글자도서현황을 보면, 34개 장애인도서관 중 29개관이 응답하였고, 평균 29종(31권)으로 나타나, 전체 장애인도서관의 큰글자도서는 총 1,054권으로 산출해 볼 수 있다. 앞서 〈표 10〉에 나타나 있는 수치를 보면,

2009년부터 조사기간인 2012년까지 보급된 도서를 모두 합하면, 25,200권이 된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헐적으로 관할 공공도서관에 보급한 큰글자도서가 있으나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어 있지 않다. 개별 공공도서관 차원에서는 큰글자도서의 수집이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노인의 독서장애와 큰글자도서의 출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글로 된 큰글자도서의 생산, 수집, 내용, 접근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독서율은 낮은 편이지만, 취미로서 독서를 선호하고,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책을 보려는 것이 도서관의 주된 이용목적으로 나타나, 향후 교육수준이 높은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게 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노인 독서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독서 수행에 가장 큰 장애는 작은글씨를 읽지 못하는 눈의 노화이다. 노인의 효율적 독서를 위해 대체자료의 일종인 큰글자도서가 출판되고 있으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유통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리스트와 교보문고의 재고리스트를 기초로 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접근가능한 큰글자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보급한 도서와 기존의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이용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

2014년 10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큰글자도서는 총 2,744종(5,738책)인데, 일반도서가 94.3%를 구성하고 있으며, 94.6%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 발행연도별 분포를 보면, 2009년 이후에 큰글자도서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극히 최근인 2014년 출판물이 전체의 85.64%에 이른다. 주제별 분포를 보면, 전체의 43.8%가 문학에, 25.9%가 사회과학 분야에 속해 있어, 주제별로 편중된 양상을 보인다. 문학 중 52.0%가 한국문학이고 사회과학 중 49%가 경제학 분야이다.

국내 최대 도서유통사업체인 교보문고에서 2014년 10월 현재 보유중인 큰글자도서는 모두 일반도서이며 한국어로 되어 있다. 큰글자도서는 1995년 출판된 것부터 판매되었고, 발행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종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감소하였다. 899종 재고리스트 중 53%가 판매 및 주문가능 도서로 나타나 있고, 2000년 이후 출판된 도서의 절판 및 품질 사태가 계속되어, 큰글자도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주제별 분포를 보면, 종교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편중 현상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은 인문(13.8%), 문학(4.8%), 역사(4.4%)의 순서이다. 종교 분야 도서는 거의 모두(98.5%) 기독교 관련이며 그 중 대부분이(88.1%)이 성경이다. 교보문고의 리스트 중에서 종교와 어린이 부문

을 제외한 280종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반도서의 중복성을 조사한 결과 115종이 국립도서관 비소장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2009년부터 공공도서관에 큰글자도서를 보급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21종(128책), 39,300부가 899개처에 배포되었다. 121종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문학 30.6%, 건강 18.2%, 인문교양 12.4%, 역사 9.9%의 순서로 되어 있어, 문학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전국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을 보면, 235개 응답 공공도서관의 평균보유 큰글자도서 수는 105종(125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큰글자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 보급 도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개별 도서관 차원의 수집은 저조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도서의 현 상황을 개선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쇄본의 한 유형인 큰글자도서의 존재와 내용을 식별하고 이용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지통정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는 국가서지를 관장하고 큰글자도서의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별 도서관의 장서구축과 독자 개인의 도서선택에도 유용하다. 납본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하고 각종 출판 데이터를 집계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대체자료의 제작과 수집을 맡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중 어느 한 기관이 클리어링하우스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큰글자도서 수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

관 장서의 큰글자도서 포괄성은 완전하지 못하고, 공공도서관의 큰글자도서 수집은 인구구성에 비추어 볼 때 과소수집되어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되어온 문화체육관광부의 큰글자도서 보급 사업은 공공도서관 장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되었어도 그 사업규모가 확장되지 못하였다. 노인독자들은 공공도서관 봉사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avanash와 Skold(2005)에 의하면 큰글자도서는 시각장애인들의 60%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큰글자도서 확충은 노인을 포함한 정보취약 계층 모두의 접근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계에서는 우리사회의 노년층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은 동질적 집단이 아니며, 노인의 독서 흥미와 정보요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또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외국의 공공도서관계에서는 일찍이 노인을 3개 연령층(65-74, 75-84, 85+)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

다(Turock, 1982). 주제별로 편중된 장서는 노인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과거의 노인 또는 대출통계에 기반한 요구분석을 지양하고 시대적 변화와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큰글자도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도서관 장서구축에 도움이 되고 큰글자도서의 출판에도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독서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인독자들에게 도서관 소장 큰글자도서에 대해 알리고 그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9%에 불과하다. 이 상태가 지속되고 노인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향후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에 실패하게 된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RNIB의 ReadOn과 같이 무료로 배포하는 큰글자도서 리뷰지를 도서관에서 발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3). 2013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유선 (1998). 한국 노인의 독서상태. 지역연구, 7, 117-149.
- 김중은 (2013). 고령화 시대 노인의 독서 경향과 과제. 디지털도서관, (71), 140-144.
- 김혜영 (2010). 노인대상 독서프로그램 실행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독서학.
- 김흥래 (2009). 노인층 독서증진 방안 연구: 북피니시운동 창안을 중심으로. 도서관, 64(2), 57-83.
- 노안교정술 (2012. 5. 31). 프런티어타임즈. Retrieved from 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_print.php?idx=85259.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4). 2014 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 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윤경아 (2006).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선주 (2004). 실버출판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출판전공.
- 박정아 (2012). 공공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선경, 이지연 (2011). 시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비이용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141-162.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3.141>
- 월간당뇨 편집부 (2008). 노안. 월간당뇨, (219), 28-31.
- 육근해 (2009). 노인용 큰글자로서 개발을 위한 적정문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171-192.
- 장혜란 (2002).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기반 정보서비스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4), 185-212. <http://dx.doi.org/10.3743/KOSIM.2002.19.4.185>
- 정신혜, 손정식, 황해영, 김성근, 유동식 (2013). 노안 연령에서 한글서체의 선호도와 가독성 평가. 한국안광학회지, 18(2), 149-156.
- 정종기 (2001).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53-71.
- 책 읽으면 운동효과 본다. (2014. 1. 7). 아시아경제, p. 8.
- 큰글편집위원회 (2010). 큰글세계문학전집출간. Retrieved from <http://mediamove.org/51>
- 통계청 (2014). 2014년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40대인데 벌써 노안 (2015. 7. 16). 조세일보. Retrieved from http://www.joseilbo.com/news/news_print.php?uid=265641.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USA (2008).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Chicago: ALA.
- Borg, C., Hallberg, L., & Blomqvist, K. (2006).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people (65+) with reduced self-care capacity: The relationship to social, health, and financial aspec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5, 607-618.
- Borish, I. M. (1970). *Clinical Refraction*. 3rd ed. New York: Professional Press Books.
- Calvo, F. J. M. (2014).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rakesh Treaty for persons with a print disability. *Proceedings of the IFLA 2014 Lyon*. Retrieved from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2005). *Opening the book: A strategy for a national network for equitable library service for Canadians with print disabilities*. Ottawa: CLA.
- Gabriel, Z., & Bowling, A. (2004).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older people. *Aging*

- and Society, 24, 675-691.
- Harvey, R. L., & Dutton, D. (1979). Reading interest of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4(3), 209-214.
- Kavanash, R., & Skold, B. C. ed. (2005). *Libraries for the blind in the information age guidelines for development*. Hague: IFLA (IFLA professional report No.86).
- Palmer J. L. (1988). Large-print books: Public library services to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14, 211-220.
- Riley, M. W., & Foner, A. (1968). *Aging and society: An inventory of research finding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Turock, B. J. (1982). *Serving the older adult: A guide to library programs and information sources*. New York: Bowker.
- U. S.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2008). *Older American 2008: Key indicators of well-being*.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eizer, J. S., & Stein, J. D. (2010). *Reader's digest guide to the eye care: Common vision problems from dry eye to macular degeneration*. 강창열 역 (2011). *아이케어: 눈건강에 관한 모든 것*. 서울: 대가.
- Williamson, K., & Asla, T. (2010). Older adults'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rd ed.) 3938-3943.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ang, Hye-Rhan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4), 185-212. <http://dx.doi.org/10.3743/KOSIM.2002.19.4.185>
- Jeung, Shin-Hae, Son, Jeong-Sik, Hwang, Hae-Young, Kim, Seong-Kun, & Yu, Dong-Sik (2013). Preference and readability of Hangeul fonts in the presbyopic age.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and Optical Society*, 18(2), 149-156.
- Jung, Chong-Ki (2001).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program development for the old age i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1), 53-71.
- Kim, Chong-Eun (2013). Reading trend and problems of the old in the aging society. *Digital Library*, (71), 140-144.

- Kim, Heung-Rae (2009). A study of methods for promoting reading of the aged - around inventing 'Book Finish Movement' of the new reading policy. *Doseogwan*, 64(2), 57-83.
- Kim, Hye-Young (2010). The research of reading program execution for the aged. M.A.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chool.
- Kim, Y. S. (1998). Reading states of the older adul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7, 117-149.
- Korea, Bureau of Statistics (2014). 2014 Statistics of the aged. Daejeon: Bureau of Statistics.
-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National reading survey in Korea.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14). 2014 Korean publication yearbook. Seoul: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 Mo, S. H., Kim, H. S., Yu, S. H., & Yoon, K. A. (2006).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Seoul: Hakji-sa.
- Monthly Diabetes Editorial (2008). Presbyopia. *Monthly Diabetes*, (219), 28-31.
- Oh, Seon-Kyung, & Lee, Jee-Yeon (2011). A study on the non-use factors of the visually disabled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141-162.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3.141>
- Park, Jung-A (2012). A study on promoting services for older adults in public libraries. M.A. thesis, Ew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Park, Sun-Joo (2004). A research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silver publishing -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ublisher editors. M.A. thesis,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3). 2013 National survey of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Youk, Keun-Hae (2009). A study on the proper large print for the development of book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171-192.